
고전국역총서

익재집

I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도시 부근 하천에 제방이 터져
수정사 마당까지 물이 넘치네
상방엔 오늘밤 선녀를 숨겨두고
절 주인이 도리어 황모랑이 되었네

都近川頽制水坊
水精寺裏亦滄浪
上房此夜藏仙子
社主還爲黃帽郎

근래에 어떤 고관(高官)이, 봉지련(鳳池蓮)이란 늙은 기생을 희롱하면서 ‘너희들이 돈 많은 중(僧)은 따르면서 사대부(士大夫)가 부르면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하니 그 기생은 ‘요즈음 사대부들은, 돈 많은 장사치의 딸을 데려다가 두 살림을 꾸리거나 아니면 그 중(婢子)으로 첩(妾)을 삼는데, 우리가 진실로 치소(縑素)¹³⁰⁾를 가린다면 어떻게 아침 저녁을 지내란 말이오?’ 하므로 온 좌중(座中)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우 추(鮮于樞)의 서호곡(西湖曲)에,

서호의 화방에 누집 여자던고
전두를 탐내어 억지로 가무하고 있네
하였고 또,

西湖畫舫誰家女
貪得纏頭強歌舞

어떻게 해야 천금을 버리는 장사를 만나
상복에서 행로를 노래할 수 있을는지
하였는데, 송(宋) 나라가 망(亡)하자 사족(士族)들이 이러한 식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다. 탐라(耽羅)의 이러한 곡은 아주 비루하지만 그러나 백성의 풍속을 보아 세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安得壯士擲千金

상복에서 행로를 노래할 수 있을는지

坐令桑濮歌行露

거꾸러진 보리 이삭 그대로 두고
가지 생긴 삼도 내버려두었네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구나

從教穞麥倒離披
亦任丘麻生兩歧
滿載青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

탐라(耽羅)는 지역이 좁고 백성들은 가난하였다. 과거에는 전라도에 서 자기(荳器)와 도미(稻米)를 팔러 오는 장삿꾼이 때때로 왔으나 숫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관가(官家)와 사가(私家)의 소와 말만 들에 가득하

130) 치소(縑素) : 치(縑)는 흑의(黑衣), 소(素)는 백의(白衣)로 중(僧)과 속인(俗人)을 가리킨 말이다.

131) 전두(纏頭) : 기생들에게 상품(賞品)으로 주는 비단을 말한다.

132) 어떻게 해야……있을는지 : 금전 때문에 지조를 무너뜨린 기녀를 탄식한 말이다. 상복은 지명(地名)으로 상간(桑間)·복상(濮上)을 가리키는데, 《禮記 樂記》에 “상간·복상의 음악은 당국(亡國)의 음악이다.” 하였고, 행로는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인데, 여인들이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노래한 시이다.

고 개간(開鑿)은 없는 데다가 오가는 관개(冠蓋)가 북[梭]같이 드나들어서 전종과 영접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그 백성의 불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번 변(變)이 생긴 것이다.

무술년 정월 초하루에

길에서 지팡이 짚은 백발노인 만나보고
늙으면 출입 양길 나흔자 다짐했더니
어허 어느덧 칠십 둘이라
칠탕 울자 말타고 삼원 하례 간다네

路逢扶杖白頭人
自約衰年不出門
堪笑七旬今過二
聽雞騎馬賀三元

충선왕(忠宣王)의 영정(影幀)을 해안사(海安寺)에 이안(移安)하다

백두로 다시 임금 수레 모셨는데
미우엔 여전히 봄 기운이 감도네
오늘날 감회가 나 같은 이 누구일까
그 당시 모시던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白頭重望屬車塵
眉宇依然照上春
此日感懷誰似我
當時法從更無人

김해부사(金海府使) 정 상서 국경(鄭尙書國經)을 전송하면 서 시(時)자 운을 얻다

글 읽을 땐 언제나 옛사람 생각하며
동시에 못태어남 한탄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옛사람 보게 되니
지극한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네
다행히 내가 지금 그대를 만났으니
어떻게 전현시에 감탄하지 않겠나
나는 평생 줄옹을 두려워하는데
세상과는 안 어울려 모두들 비웃는다
동인이 남긴 문장 자수로 기록하고
줄렬한 나의 초고도¹³³⁾ 기글하게 써냈는데
한 번 보고 장독덜게 하려고 하였더니

讀書思古人
常恨不同時
同時見古人
至樂良在茲
幸哉吾今得吾子
胡不感此前賢詩
平生拙翁吾所畏
與世蛆語人共嗤
東人遺文手自錄
又有拙藁皆倔奇
一觀直欲覆醬甌